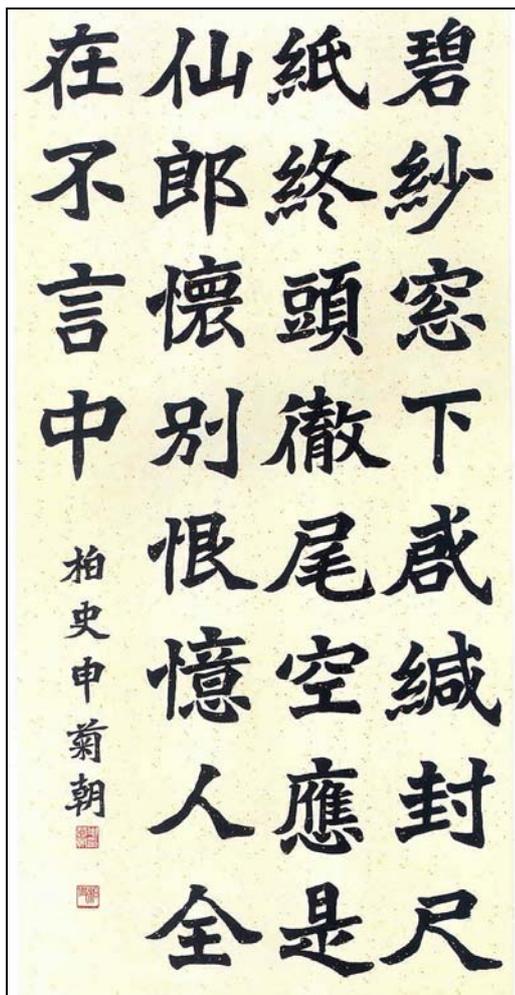


제19회 공무원미술대전 동상(행정안전부장관상)수상 (2009.11.10.)



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장을 시상하고 있다.



“寄夫”_隨園詩話 中에서

碧紗窓下啓緘封 (벽사창하계함봉)

푸른 김창 아래서 봉함을 뜯어보니

尺紙終頭徹尾空 (척지종두철미공)

편지지엔 아무 것도 써 있질 않더이다.

應是仙郎懷別恨 (응시선랑회별한)

아하! 우리 님 이별의 한 품으시고

憶人全在不言中 (억인전재불언중)

말 없는 가운데 그리는 맘 담으셨네.

* 淸(청)나라 袁枚(원매, 1716-1797)의

‘隨園詩話(수원시화)’에 실린 郭暉遠

(곽휘원)의 아내가 쓴 ‘寄夫(기부)’의

구절로, 본의 아닌 실수로 백지 편지를

보내온 남편에게 보낸 답장이다.